

수원, 대중평 사상 최고 성적 획득

대교협 평가결과 5백점 만점 4백85점 얻어

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 등 6개 전영역 우수 평가



우리학교 수원캠퍼스가 지난 97년 11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97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에서 우리학교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이번에 수원캠퍼스 대중평에서 1위로 평가된 것은 양 캠퍼스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는 평가 사상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대교협의 대학평가인정위원회(위원장:김종은 학술진흥재단 이사장)가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서 개최한 제14차 회의에서 심의·확정한 것이다.

박규홍 수원캠퍼스 부총장은 "전체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한 결과"라며 "앞으로 교육시스템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통해 독자적 발전을 이룩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학교 수원캠퍼스, 가톨릭대,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해양대 등 전국 국·사립 26개 종합대가 참가한 이번 평가는 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시설·재정경영 등 총 6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우리학교는 6개 전영역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96년도에 아주대가 획득한 4백84점을 누르고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중평 결과를 살펴보면 94년 서울대 등 7개 대학 평가에서는 4백74점, 95년 연세대 등 23개 대학 평가에서는 4백71점, 96년 아주대 등 13개 대학 평가에서는 4백84점이 각각 최우수 점수로 기록되었다.

(해설)

95년 대중평에서 서울캠퍼스가 우수대학으로 인정된 것에 이어 지난 해 11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97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에서 우리학교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이번에 수원캠퍼스 대중평에서 1위로 평가된 것은 양 캠퍼스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수원캠퍼스는 지방캠퍼스가 지닌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서울에 본거지를 둔 대학의 제

2캠퍼스가 성공가능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적극적인 교육여건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수원캠퍼스가 이처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에는 그간 대학교육개혁평가, 국제전문인력양성과정 국제대학원 지정, 가상대학 실험운영 대학선정, 경기도 컨소시엄지정대학, 정보통신부 창업지원센터 선정, 언론사 주관 평가 우수대학 선정 등 각종 선정과 평가에서 최우수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 1백45개 자매대학들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화에 대한 노력과 적극적인 산학협동 추진으로 대학재정난을 극복한 점도 높이 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LG, 제일화학, (주)부영 등과의 산학협동으로 발전기금 조성에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남이 기자)

경희 space



어디로 갈까?

지난달 27일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중앙대자모며 학생회관 내에 백백하게 붙여진 동아리 광고는 신입생들의 최고 관심사.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운 일을 찾아 누비는 캠퍼스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소애(小愛)가 소외로

교시탐

봄이 되고 새로운 학기도 시작되었다. 관심분야의 강의를 듣고 전공도 더 깊게 공부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현재 학생들은 뿐만 아니라 편입생들과 이번 학기에 귀국한 유학생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학사행정이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한 일반편입의 경우 복수지원으로 인해 빠져나간 인원을 충원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것이 지난 2월 24일이였다. 학점 인정 여부를 평가하는데 거의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비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 학부생들이 수강신청을 끝내는 이번주에 편입생들은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게다가 지난 3월 2일에 합격자를 발표한 귀국 유학생 편입학까지 겹쳐 행정은 두배로 혼란을 겪게 되었다.

개강 첫주에는 주로 한학기 강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수업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편입생들이나 귀국유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강의를 한시간 못 듣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업을 듣는데 계속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강의 들을 때 계획이 스스로 서질 않아 혼란을 빚게 된다.

우리학교에 적응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려는 학교의 정책은 옳바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정상 지연은 그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준 꼴이 되었다.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 및 학교의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 (김수관 기자)

갈 길 바쁜 경희 50돌 기념사업 세부계획 수립 급선무

각종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및 조직 구축 선행돼야

50



▲철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행사는 성공리에 마치기 힘들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격의 인물들로 구성된 조직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1949년
우리학교의 건설기

50년대에는
종합대학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1959년
충실과 비약의 발전기

병설 학교와
경희의료원이 탄생했다

1969년
인간육성 운동기

각종 생활화 운동이 등장한 이 때는
우리학교 한의학의 부흥기이기도 하다

1979년
국제화 대학 추진기

해외유학과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었다

1989년
발전계획 실천기

우리학교 목표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1999년

?

50주년을 1년 앞두고

창학 반세기 사람으로 치면 '하늘의 뜻을 안다' 하여 '지천명(知天命)'이라 일컬어지는 나이를 우리학교는 내년이면 맞이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역사에서 50년이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닌 것을 볼 때 이제 우리학교도 전통을 겸비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학교의 지난 50년을 살펴보면 사람의 50년사에 빗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뛰니뛰니 해도 수원캠퍼스와 광릉캠퍼스의 설립만큼 개교 이래 우리학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이면 우연하게도 수원 캠퍼스와 광릉캠퍼스가 각각 설립 20주년과 1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학교측은 '경희대학교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 캠퍼스별 기념사업도 캠퍼스별 부총장과 평화복지대학원장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사업 구축 필요

기념사업 추진 움직임은 지난 96년

3월,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학교 총동문회내의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후원회'의 활동에서 의지를 얻어 결성하게 된 이 기구는 결성 이래 학내구성원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발전기금 모금 등 각종 행사를 기획, 운영해 왔다. 개교 50주년이 임박하고 동문들의 사회적 역량 또한 성장한 이 즈음에 이러한 기구를 결성한다는 시기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식직원이 1명 뿐인 이 기구만으로 거대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성공적인 행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획안이 마련될 수 있고 학내며 학외홍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행사추진 조직 부재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념사업에 있어 기본으로 추진하는 역사서 편찬만 두고 보아도 현재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89년 제작된 40년사의 경우 약

2년이라는 제작시간이 소요됐다.

편찬하게 되는 책의 성질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이 일반책들의 몇배로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서는 그 외에도 기념 CD-ROM 제작 등을 구상하고 있어 작업시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재정난 역시 사업진행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정원 총장은 "국가 경제사정을 감안, 가급적 예산을 감축하겠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규모있는 행사로 축제분위기 조성에 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원캠퍼스 기획조정실은 수원캠퍼스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구체적 사업계획 지원

현재 학교측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은 말 그대로 각양각색이다.

50주년 중요성 인식

지난 89년과 94년에 치러진 40주년과 45주년 기념행사의 경우만 보아도 각종 행사연출의 도식적 진행으로 인해 우리학교의 이미지 조성 작업이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확연해진다.

실제로 96년도에 1백주년을 맞이한 숭실대의 경우만 보아도 기념사업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이미지 상승 작업 실패가 결국 행사 전반에 대한 좋지 못한 평을 받게 했다.

우리학교에 있어 50주년은 타학교의 1백주년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특수성 있는 대학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전성기에 맞추어 추진하게 될 50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한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세기를 향하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 단계인 것이다.

각종 평가와 행사를 통해 조총장의 취임 당시 약속처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번 행사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속도도, 현재의 조직으로 이 기회를 맞이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시급한 조직 구축과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국내외에 우리학교의 위상을 알릴 만한 호기를 놓칠 수 없는 일이나까이다. (김남이 기자)

사고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47기 수습기자 모집

· 원서마감 오는 18일까지 ·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속삭'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대학생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가
왜? 밤에 술마시? 미팅?
여기 여러분의 정열
과 패기를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학주보, 선배와 끈끈한
정이 넘치고, 자기가 쓴
원고가 신문에 나올 때의 환희와 기쁨이 있는 공간,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서둘러 오십시오.

○ 대상: 98학년도 신입생
○ 모집부서: 취재부, 시사부, 사회부, 학술부, 문화부
○ 선발방법: 면접
○ 선발일정: 서울 3월18일, 수원 3월19일 양캠퍼스 면접실 오후 6시
○ 원서교부 및 접수처: 대학주보 편집실
○ 원서 접수 마감: 서울 3월18일, 수원 3월19일